



자신만의 준비 대책 선택

#2



눈보라 속에서

준비된 뉴욕

자신만의
준비 대책 선택



©2013 공익 광고 협의회 및 뉴욕시 재난 관리국
(Ad Council and the New York Ci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글 및 디자인: 교육 재단 (The Education Center, LLC)

눈보라 속에서

“누나. 소피아 누나, 일어나.”

남동생의 성화에도, 소피아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 덮고 꾸고 있던 꿈을 계속 이어서 꾸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토요일이었거든요.

“누나. 어서. 일어나.”

소피아는 남동생이 얼마나 자기 가까이에 와 있는지 굳이 눈을 떠서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항상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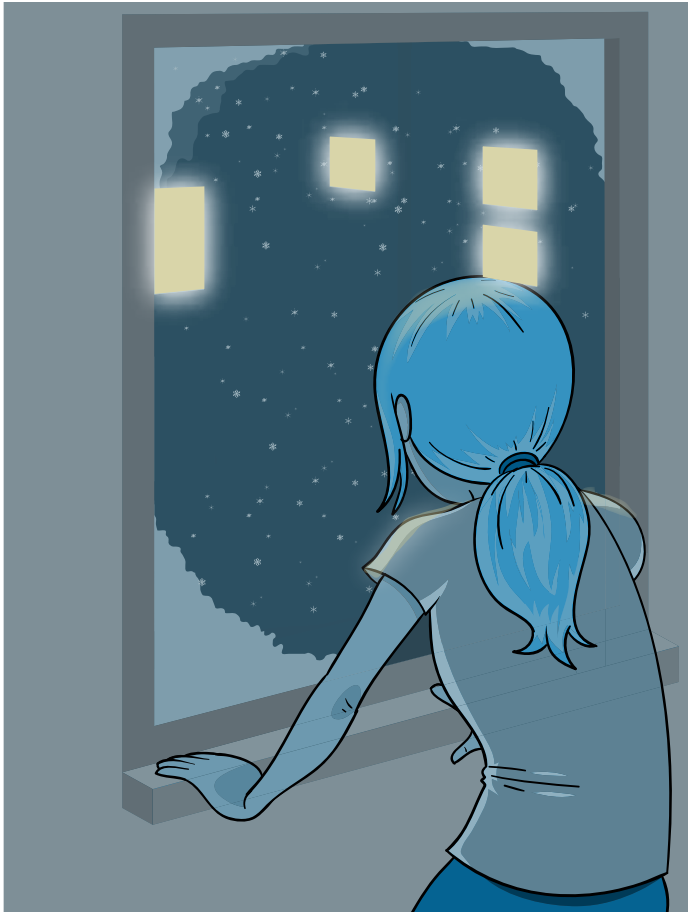
“가서 만화 영화나 봐.” 소피아가 베개 속에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봐.”

“눈이 온단 말이야!”

눈이라는 말에 소피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쪽 눈만 뜨고, 동생 얼굴에 퍼져 있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진짜, 눈이야.”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밖에 눈보라가 치고 있다고!”

소피아는 다시 눈을 감고, 바로 돌아누었습니다. 비록 눈은 감고 있었지만, 방안의 들어오는 빛이 보통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 날 평범한 토요일 아침보다 어두우면서도, 흰 색이 도는 날씨였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보이던, 지붕, 근처 건물, 멀리 있는 다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나, 태양, 심지어 비나 안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보면, 건물과 지붕을 흐미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볼 수 있었던 건 눈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려왔습니다.

“엄마 봤어?”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안 계셔?”

“집에 안 계시다고? 조이,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니, 무슨 말이야? 엄마 깨워드렸어 안 깨워드렸어?”

“못했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집에 안 계셔서.”

때때로 소피아는 남동생이 자기를 화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냈지만,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이는 창문들 사이를 오가며 뛰어다녔습니다. 전기 불꽃같은 푸른색의 잠옷을 입고 있는 동생은 마치 조명등 같이 보였습니다.

“밖에 눈이 와. 밖에 눈이 와. 눈이 온다고!”

소피아는 방에서 나오면서,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바닥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방에서 걸어 나오면서, 소피아는 집이 평소와 달리 춥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조이한테 내 방에서 나가라고 좀 해주세요.” 소피아는 엄마 방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의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조이가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아무도 없는 주방을 지나쳤습니다. 뒤에는 동생이 졸졸 따라왔습니다. 조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는 대부분 눈—“눈, 눈, 눈, 눈”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축구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재빨리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 보고 있었습니다.

조이의 눈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 누나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조이가 소파로 뛰어 올라 그 낯선 여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소피아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나야, 올리브. 복도 끝에 사는.” 올리브는 소피아가 기억해낼 시간을 주었습니다. 올리브! 맞다,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소피아가 자기 이웃을 못 알아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아가 올리브를 봤을 때, 올리브 머리 색깔은 밝은 핑크가 아니었으니까요.

“너희 엄마는 할머니를 도와 드리러 가셨어. 할머니 차가 눈 속에 갇혔데. 원하면 가서 더 자도 돼. 아줌마는 금방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소피아는 말하다 금방 멈추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돌아오신다고요?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올리브는 마지못해 담요 속에서 팔을 꺼냈습니다. 팔찌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손목에서 올리브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 시간쯤 전에.”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잖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집으로 오실 때까지 잠을 자도 되는지, 아니면, 옷을 갈아 입고—얼어버린 발을 따뜻하게 해 줄 양말도 포함해서 폭설에 갇혔을 때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는 가족 비상 대책을 확인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소피아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6페이지로 가십시오.

소피아가 옷을 입고, 가족 비상 대책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8페이지로 가십시오.

소피아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소피아는 방으로 돌아가서, 올리브가 시청하고 있는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비상 속보를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은 기록, 폭설, 정전, 그리고 실내였습니다. 상황은 소피아가 걱정하던 거 이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단지 따뜻한 이불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코만 빼꼼히 내 놓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끼익하는 소리가 밤이 폭설로 엉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엄마가 곧 오실 거고, 이제 다시 평범한 토요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엄마가 팬케익을 구워주실지도 모릅니다.



소피아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그 전과 같은 달콤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치는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하지도 않고, 더 이상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 따뜻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떴습니다. 조이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고양이, 미스터 위스커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갔어. 나 추워.” 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누나 옆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이의 발이 얼음장 같이 찼습니다.

“만화 영화 이제 안 해?”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케이블이 안 나와, 그리고 전기도 나갔구.”

“그렇구나, 조이 발이 너무 차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엄청 따뜻한 옷을 입고, 이 추위를 견디어 보자.”라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네 방으로 가서,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옷을 찾아봐. 두꺼운 양말, 따뜻한 바지, 그리고 긴팔 셔츠나 후드티 또는 둘 다, 아니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할머니가 주신 스웨터가 좋겠다.”

“음. 싫어!”

“음, 좋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건 좀 안 예쁠지는 몰라도, 확실히 따뜻할 거야. 옷을 입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해 보자.”

10페이지의 “이야기 계속”으로 진행합니다.

소피아는 옷을 입은 후 가족 비상 대책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때, 올리브가 보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비상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 기상 예보관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치아가 밖에 반짝이는 눈처럼 하얗습니다. 그는 항상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보관이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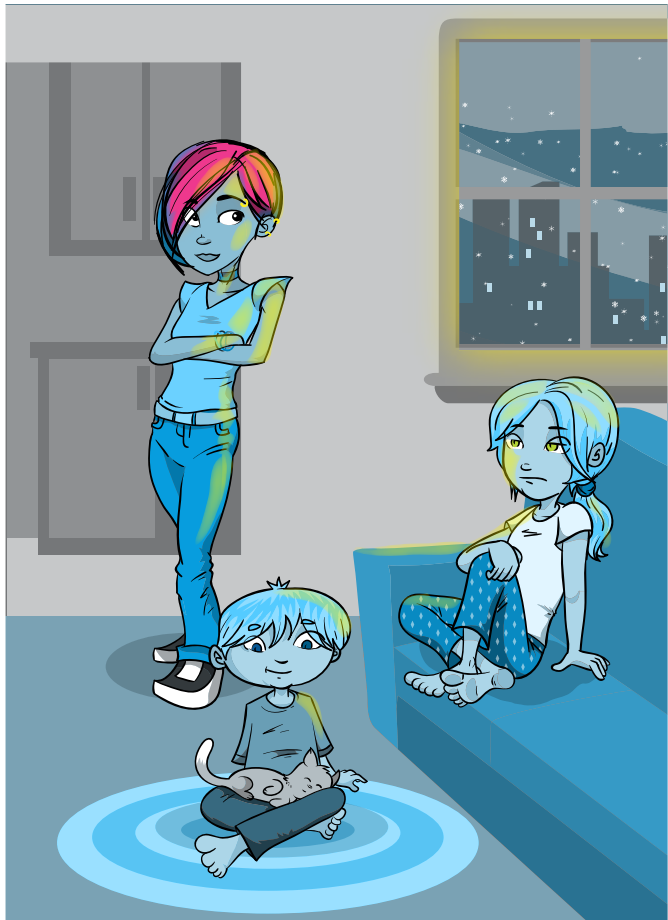
“저 사람은 저러고도 큰 돈을 벌겠지. 진짜 스마트해.” 올리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재 지금 계신 곳이나 대피소에서 나오지 마시고, 폭설이 내리는 동안 모든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예보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도로는 지금 눈이 날리면서 쌓이고 있습니다. 정전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 엄마는 항상 우유하고 건전지를 사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시키셨는데.”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와 엄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비상 대책을 세우고 비상 시 용품 키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키트는 아파트에서 여러 날 동안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폭설, 정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조이하고 나는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해. 두꺼운



양말, 따뜻한 바지, 따뜻한 셔츠나 스웨터 같은 옷으로. 정전에 대비해야 해, 정전이 되면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 서로 도와서 식료품 저장실 뒤에서 비상 시 용품 키트를 가지고 와야 해. 우리 모두 팬찮을 거야. 올리브, 내 스웨터를 가져다 줄게, 더 입어.”

그리고 나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조용해 졌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시계에서 나는 째깍 소리와 조이의 고양이, 미스터 위스커가 주방 어딘가에서 내는 야옹 소리만 들렸습니다.

10페이지의 “이야기 계속”으로 진행합니다.

이야기 계속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주방 식료품 저장실에 올리브와 함께 가서, 소피아와 엄마가 함께 준비해 놓은 비상 시 용품 키트를 찾았습니다. 키트를 열어보고, 올리브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여기 다 들어 있잖아, 그렇지?!”

“엄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밖에 나가 지 않고도 대략 일주일 정도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놓기로 했지. 와인드업 라디오, 손전등, 비상용 담요, 식품 및 생수를 넣어 뒀어. 미스터 위스커 사료도 있는 걸.”

“우리 가족은 이런 거 없는데.” 올리브는 비상 시 용품 키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봐. 물도 있고, 조리가 간단한 여러 종류의 식품, 통조림, 캔 오프너, 건전지, 구급 상자도 있네.”

전기가 깜빡이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조이가 소피아의 무릎으로 달려들며, 누나의 목을 꼭 끌어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조이가 소피아의 목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엄마를 찾아봐야 할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소피아와 올리브가 밖으로 나가 엄마를 찾아보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11페이지로 가십시오.

소피아와 올리브가 밖으로 나가 엄마를 찾아보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안된다고 결정한다면, 13페이지로 가십시오.

소피아와 올리브는 엄마를 찾으러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구조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 셋이서 아파트 문을 잠글 때, 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네이비실이 된 것 같아.”

“바보 같기는.” 소피아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흠, 여보세요? 내 동생이 바보라고? 전기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우리 앞으로 올라올 것 같아, 소피아?” 올리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단으로 가는 문을 열면서, “우린 계단으로 내려가야 해.”라고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니다. 정전되었기 때문에, 비상용 등이 겨우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으스스해.” 조이가 말했습니다.

“손전등을 하나 더 가지러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너희 엄마한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잘될 거야. 모두 함께 있자, 손전등 불빛 가리지 않게 조심하고.”

소피아는 겁 없이 길을 앞서 갔습니다. 이제 겨우 한 층을 내려왔고, 11층을 더 내려가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바짓단에 부츠가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과 손목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소피아!” 올리브가 소리쳤습니다.

소피아가 아파서 소리쳤습니다. “아야!”

올리브와 조이는 바닥에 앉아 다른 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쥐고 있는 소피아를 발견하였습니다.

“누나, 누나, 괜찮아?” 조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이. 바닥을 짚어서 손목이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 질 거야. 농구하다 넘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괜찮아....”



“애들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우리는 집을 떠나서는 안 돼. 집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어야 해.” 올리브가 결정했습니다.

세 명은 다시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멍하니 서로를 쳐다 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13페이지의 “소피아와 올리브가 밖으로 나가 엄마를 찾아보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안된다고 결정한다”로 가십시오.

소피아와 올리브는 엄마를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안된다고 결정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 조이가 울먹입니다.

“괜찮아, 조이. 여기 누나도 있고 올리브 누나도 있잖아. 그리고 정말 멋진 음식도 있어.” 소피아는 비상 시 용품 키트로 가면서 조이에게 즉석 누들을 보여줍니다.

“걱정 마, 꼬마야.” 올리브도 거들어 말합니다.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는 모험을 즐기는 것 같은 거야. 집에 머물기 모험 같은 거.”

조이가 눈을 굴립니다.

“올리브 말이 맞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봐. 우리가 여기서 밖으로 나간다면, 엄마가 우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 있어, 조이. 왜 좀 더 빨리 이 생각을 하지 못했나 모르겠네!”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내 휴대폰은 아직 작동이 되잖아. 너희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자.” 올리브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조이가 창가에서 달려와서는 올리브와 소피아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조이는 올리브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거의 독차지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동안, 내가 가서 보드 게임을 가지고 올게.” 소피아는 조이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괜찮으신거죠? 우린 괜찮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답장주세요. 이건 올리브 전화예요. 조이와 소피아.’라고 문자했어. 괜찮은 것 같아?” 올리브가 물었습니다.

“보내자!” 조이가 말했습니다.

올리브와 소피아는 엄마가 답장을 보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맞았습니다. 엄마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전화는 핸드백 속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문자 신호를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장갑을 끼고 있을 것입니다. 조이도 이 생각에 동의하고, 소피아는 동생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기가 잠시 동안 깜빡거리더니, 다시 나갔습니다.

“보드 게임을 하기에 정말 완벽한 시간인 것 같아!” 소피아는 게임을 고를 수 있게 짹 펴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올리브의 전화에서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있다. 모두 괜찮다. 장갑 때문에 문자 입력하기가 어렵구나. 사랑한다. 엄마가.”

올리브와 소피아는 첫 게임 선택을 조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물론 조이는 자기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게임을 골랐습니다. 몇 차례 게임이 진행된 후, 조이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블럭을 가는데 얼마나 걸려?” 조이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로비까지 내려가서 엄마를 기다리자.” 조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 그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아.”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으니, 아파트가 곧 따뜻해 질거야. 여기가 안전해.”



로비로 내려가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15페이지로 가십시오.

집에 그대로 있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16페이지로 갑니다.

로비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조이가 맨 먼저 문을 나섰습니다. 조이는 기를 쓰고 엄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올리브는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 다. 현관문을 잠그면서, 올리브는 조이와 소피아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폭풍이 늦은 오후까지 최악의 상태로 계속되면 안되는데.” 올리브는 말했습니다. “아직 점심때도 되지 않았어. 우린 계속해서 조심해야 해.”

“핑크 머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조이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누르면, 더 빨리 와.” 조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야.”

“물론이야, 맞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작은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정전이 됐습니 다. 다른 더 큰 벨소리가 엘리베이터 가득 울렸습니다. 올리브는 막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조이를 붙잡았습니다. 조이를 다시 밖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휴! 빠른 판단이 있어.” 소피아가 올리브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해.”



16페이지의 “집에 그대로 있기로 결정한다”로 가십시오.

집에 그대로 있기로 결정합니다.

셋은 계속해서 다른 보드 게임을 이어서 했습니다. 체커 게임을 막 시작하려는 찰라, 열쇠 소리가 들리고, 소피아와 조이의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누구 밖에 나가서 눈놀이하고 싶은 사람?” 엄마는 미소를 띠며 조이와 소피아는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가 거의 쓰러질 정도로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를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올리브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할까?” 엄마는 조이를 안아 올리며, 안아주었습니다. 소피아의 볼에는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올리브, 정말 고맙구나. 오늘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오늘 눈은 정말 끔찍하구나!”

마침 때맞추어, 조이가 “눈, 눈, 눈, 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행복하게 노래 하였고, 가사는 모두가 집에 안전하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